

# 올 공공기관 채용때 18%는 해당지역 인재로

###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지역 취준생 기대 매년 3%씩 높여 2022년 30% 이상 넘겨야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

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진다.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오는 2022년에는 총 3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에 위치한 대학·전문대,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이 무리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

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전국에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처음 적용하는 기관은 내달 초 상반기 44명을 공개채용하는 대구시의 한국가스공사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 '잡 알리오'(job-alio)의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올해 총 2343명의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채용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3~5월 상반기 1586명의 정규직 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전KPS(주)도 3월 222명, 한국농어촌공사 8~9월 하반기 275명, 한전 KDN 16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40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명, 한국인터넷진흥원 2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9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명 등 채용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1.4%로, 2014~2016년 사이 신규채용시 지역인재 비율도 12.3%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에너지신산업 진로탐색 기회 제공  
월간 신바람에너지스쿨을 운영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바람에너지스쿨에 참여한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한전 본사를 방문해 홍보관 견학을 하고 있다.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권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4개월간 신바람에너지스쿨을 운영했다.

## 한전, 4개월간 운영 '신바람에너지스쿨' 성료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시호)는 16일 신바람에너지스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신바람에너지스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호남권 14개 중학교 2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운영됐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탐구, 한전 본사

홍보관 견학, 에너지 분야 진로탐색, 팀별 프로젝트, 에너지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콘진원, 오늘 광주서 올 주요사업 설명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17일 지역 내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시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 3층 영상시사실에서 진행된다.

올해 주요 사업방향 소개를 비롯해 ▲콘텐츠진흥1본부(방송, 게임, VR)사업 ▲교육사업본부(콘텐츠인재캠퍼스) 사업 ▲콘

텐츠코리아랩본부(기업 육성, 창업지원) 사업 ▲문화기술진흥본부(CT R&D 등) 사업 ▲글로벌비즈니스지원본부(해외마켓, 금융·투자 등) 사업 ▲콘텐츠진흥2본부(만화·스토리, 애니·캐릭터, 음악·패션·지역) 사업 순으로 각각 20~30분씩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와 나눠야

###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공포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제·개정했다.

새로운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서에 담겼다.

산업재해 소액 비용 등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담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새 계약서가 사용된 거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10년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 시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지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장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업연금이나 공·사적 급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자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이며,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그 밖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기존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연합뉴스

## 전파진흥원 '미디어 이슈 & 트렌드' 발간

### 방송콘텐츠·미디어 산업 정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16일 방송콘텐츠와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루는 '미디어 이슈 & 트렌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간되는 이번 '미디어 이슈 & 트렌드'에는 2017년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방송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을 정리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심층 분석에서는 '중국 방송산업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방송산업의 현황을 분석했다.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실시간 방송과

AI의 접목, T커머스, 숏폼(Short form) 동영상 등 기술 간 결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사례와 시사점을 다뤘다.

또 리뷰리포트에서는 2017년 글로벌 방송·미디어산업을 결산하고 미래를 조망했다.

KCA는 올해도 최신 동향과 미래 미디어 산업에 관한 다양한 동향을 심층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KCA 홈페이지(www.kca.kr) 자료실 '미디어 이슈&트렌드'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